

신행수첩

'국가재난소멸 천후국제' 오는 8일 한강시민공원서

우리속담에 '소삼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수십명의 목숨을 앗아간 성수대교붕괴사건은 우리사회의 구조적 결함을 일깨워 준 값비싼 교훈이었다.

온국민이 각자의 맡은 바 책임을 다스림과 점검하고 공동체 사회속의 난제들을 함께 해결 하자는 큰 의력으로 진행되는 '국가재난소멸 및 희생자 천후국제'가 오는 8일 오전 11시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에서 열린다.

자선스님)은 오는 10일 오후 4시부터 1박2일간 구의동 영화사에서 '불교의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교육마당'을 펼친다.

사부대중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마당은 계속되는 토론과 질의응답 등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불교'에 대한 참가자들의 열띤 목소리를 담는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공동체 놀이와 율력을 통해 서로의 교류와 교감을 넓히는 시간을 갖는다.

불교개혁과 불교의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기에는 짧은 시간, 그러나 열린생각으로 미래

를'과 자연을 사랑하는 단제가 있다.

부산불교신도회 소속 부산불교신학회(회장 안기현)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반 금정산 범어사 보제루에서 창립기념회, 불우청소년 가장돕기 장학금 전달 및 자연보호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부산불교신학회는 초·중·고생 1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의 장학금을 계속 전달키로 하는 한편,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불자에게 무공해비누를 선물하고 행운권을 추첨해 일반인의 참여를 높일 예정이다. (051)464-2020

구산스님 상당 범어집 출간

15일, 송광사서 11주기 추모법회

한국불교를 해외까지 널리 전한 이를 꼽으라면 단연 구산선사(1909~1983)이다. 1973년 송광사에 불일국제선원을 개설한 것을 비롯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고려사, 스위스 제네바의 불승사, 미국 카펠의 대각사를 개설하는 등 해외포교에 크게 기여했다.



구산스님

구산스님의 입적 11주기를 맞아 오는 15일 오전 10시 송광사에서 추모법회가 봉행된다.

구산선사는 1969년 송광사에 조계총림을 개원하여 승보종찰로서의 사격을 다졌으며, 송광사의 부속건물들을 증축해서 오늘날의 대가람으로 조성하기도 했다.

한편 문도들이 중심이 된 구산선사문집간행위원회는 구산스님 추모일에 맞춰 상당범어집을 출간, 스님의 영전에 헌정할 예정이다. 문집은 1권 상당범어집을 비롯 구산스님의 법어 및 서간 사진 등의 자료를 모아 계속해서 펴낼 예정이다.

기라동 광림사 포교원에서 연화청각장애자와 함꼐 송년법회를 갖고, 작은 정성을 담은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02)732-0614

차 문화 다시 볼 기회 3일부터 초의선원서

또 한해가 저물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그윽한 차향기와 함께 정리 할 수 있는 공간이 인사동 초의선원에 마련됐다.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열리는 차생활문화자료전은 차맛을 즐기며 다구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거기다 '한국 전통차의 역사와 이론', '한·중·일 차문화 비교론'을 주제로한 용운스님(월간 다담 발행인)의 강연도 들을 수 있다.

이 강연은 4일과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또 3일 오후 3시에는 차그릇 만들기 도예시범이 있으며 행사기간 내내 차그릇 글씨 그리기 시범도 계속된다. 수시로 차문화 관련 비디오도 상영되며 6일(오후 7시) 7일(오후 2시) 9 일(오후 6시)에도 용운스님의 강연이 열린다.

이동신 범사 추모비 제막 10주년 맞아 도술사서

불교인은 모두가 깨치기 위해 수행중에 있으며 우리들의 얼굴 모습이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른 공간과 시간속에서 각자의 근기에 맞는 수행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길을 걷고 있다.

오는 6일 강원도 양구군 죽곡리 군법당 도술사(주지 신원길)는 고 이동신 범사 추모비 제막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는 꽃다운 나이에 군인신분(당시 중위)으로 포교에 정열을 사르다 산화해 간고 이동신 범사 추모 10주년을 맞아 인근 사찰스님들과 주민, 군법사들의 참여속에 진행될 예정이다. (0345)481-5806

"신라예술과 만나다" 터사랑, 10일부터 양일간

잊혀져 가는 문화와 역사를 현장체험을 통해 알고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극토순례 모임 '터사랑'에서는 잊혀져가는 소중한 불교문화와 역사를 찾아 오는 10일 11일 양일간 옛 신라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경주일대로 극토순례를 나선다.

토함산을 등에 지고 광활한 동해로 향해 있는 석굴암을 둘러 신라불교문화의 가장 뛰어난 예술의 극치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은 함께하는 회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것이다.

또한 조상들의 슬기와 살아 있는 곳곳을 찾아 순례를 다녀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일깨워 줄 것이다. (02)725-1284

나의 수행일기



김종규 <삼성출판사 회장>

나는 불법의 맥이 유달리 깊고 두터운 남도의 정서속에 자랐다. 남 못지 않게 깊은 신심을 지니고 계신 어머니 덕분에 모든 신앙이라고 할 불도의 끈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리고 비현실적이고 반항적이며 열세적이었던 청소년시절 무상(無常)이라는 불교의 사상은 나의 마음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했다.

연으로, 사회에 나와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출판문화에 종사하면서 바로 부산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문화계, 학계, 언론계등 깊은 신심을 지니고 10년이 넘게 삶을 만끽하는 자유주의자들을 많이 만났다. 청남 오재봉, 한파 이주홍, 요산 김정환 선생을 비롯한 선배들과 동석하면서 효담(최원술)스님이 계시는 다술사를 비롯한 여러곳을 다니며 많은 가르침과 나이를 떠난 교유를 갖는 행복을 누리기도했다.

특히 청남, 효담스님과의 만남으로 나는 다도를 익히게 되고 1974년에는 서울에서 효담스님을 모시고 중천 김충렬박사와 김상현교수 그리고 김오근 박사와 함께 차선회(茶禪會)란 다회를 만들게 되었다.

그러면서 매달 행하는 박물관 답사를 통해 우리 산하의 불교 문화재를, 민화회를 통해서도 우리민족의 심층문화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그속에서 더욱 깊은 불법의 세계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불교교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선지식에 늘 감사...보은회 결성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법다운 불교를 이해하고 또 오로지 신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은 동국대학에 들어가면서 부터였다. 불교종립대학이라는 불교적 분위기에 매우 일요일 열렸던 백성옥 총장의 강교도 간결한 불교사상 강의를 나를 비롯한 전교생들에게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철학적이고 문학적이었던 학교의 분위기는 모두가 불교를 바탕으로한 동국대만이 가질수 있었던 공지이자 자랑이었다.

이뿐만 대도 누구나 아는 양주동, 서정주, 조영기 교수와 탄허스님을 비롯한 석학, 고승들을 언제나 가까이에서 만날수 있었다.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스님학생과 동대문 아전복에 군화를 신은 학생들이 함께 삶과 사상과 학문을 논하며 자연스레 불법을 존속하는 젊은날의 도장이었다.

고향후배이자 방송작가로 활동중인 윤형광과의 사경도 동국대학교에서의 소중한 인

배우고 신심을 다지기위해 '보은회'라는 부부불자모임을 만들어 한공스님과 총명스님 등을 스승으로 모시고 매달 사찰과 가정을 오가며 정진해 온것이 올해로 15년이 되었다. 여기에 과분하게도 경찰청 경순단 중앙후원회의 회장까지 맡겨져 부록하나의 외 부활동도 해오고 있다.

매일 새벽 5시쯤 일어나 머리맡에서 늘 잔잔한 미소를 띄고 있는 고불(古佛)에 헌향, 헌다를 하고 불경을 듣는다.

이제 나보다 더 돈독한 불심으로 생활하는 안사람과 녹차를 마시고, 오늘도 여기 저기 헌분이 있는 여러사람과 사업관계로 인사를 나누며 다담불담(茶談佛談)으로 하루를 여는것이 나의 현재 삶이요, 신행의 길이다.

선가귀감의 머리쪽에 나오는 '마음은 거울의 바탕과 같고 성품은 거울의 빛과 같다(心如鏡之體, 性如鏡之光)'는 경구(經句)를 가슴에 되새기면서,



“고객의 만족은 우리의 생명! 기술은 최고, 최고 기술은 정성! 한마음으로 성실하게!”

전인차량 24시간 항시 대기
정확한 진단, 신속한 처리
섬세한 안전점검
그리고 보험업무처리까지

이글스 카텍크 | 전화: 0336-643-1472 642-8572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57-7 | 팩스: 0336-642-5858

태고종(총무원장 박서봉)의 주최로 열리게 되는 이번 국제는 성수대교붕괴등 잇따른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원혼들을 위로 천도하고, 우리사회의 안녕을 기원하는 대법회의 자리다.

이날 국제에는 태고종 종정스님을 비롯한 종단스님, 신도, 희생자 유가족등 1만여명이 참석해 국가적 난제들을 함께 극복하자는 국민적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게 된다. (02)745-1614

백제불교를 찾아서 간월암, 개심사등 참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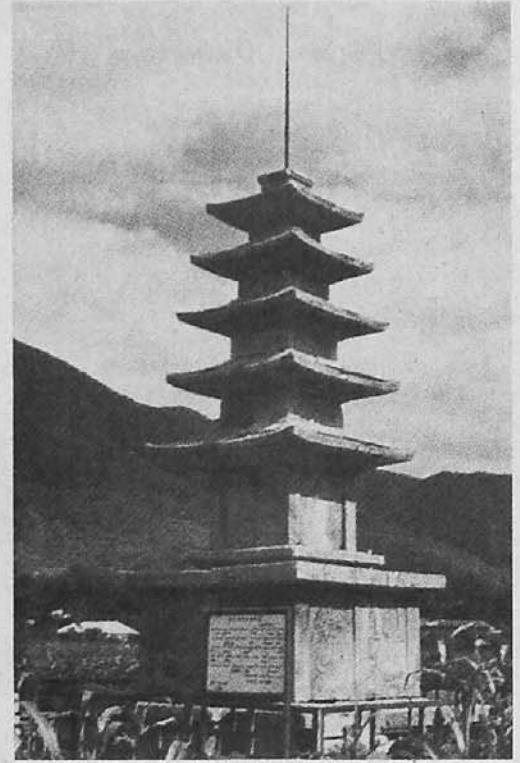
시적인 영감이 한없이 떠오를 것 같은 계절에 두레문화기행(회장 김재일)에서는 11일 마음을 살차울 불교문화자를 답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차령산맥이 서해에 접하며 그 맥이 다하는 지점 가야산 일대를 답사하게 될 기행팀은 백제불교를 꽃피웠던 곳을 돌아본다.

서산군 운산면에서 남으로 6km쯤 떨어진 골짜기에 국보 제 84호로 지정된 마애삼존불이 있고 여기서 1.3km 넓은 사지에 앉힌 지장문화재를 다스어나 보존하고 있는 보원사지가 있다. 답사팀은 이곳을 방문 백제불교의 진수를 맛보게 된다. 또 개심사, 간월암에서의 역사적 회고와 서해안에서의 일몰의 광경까지 초겨울의 운치를 한껏 만끽하게 될 것이다. (02)712-5812

불교의 내일을 준비하자 영화사서 불교개혁모색

"불교의 미래는 우리의 어깨에!" 이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이사



탑위로 출간이 솟아있는 서산 보원사지 5층석탑

를 준비하는 참가 불자들의 뜨거운 신심은 초겨울의 쌀쌀함을 녹이게 될 것이다. (02)747-1901

자연보호는 곧 생명보호 부산불교 산악회 창립

문수보살은 "자비로 군생(群生)을 구호하는 가르침이 불교이며, 남을 해치는 마음없이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가르침이 불교"라고 했다.

이는 자연과 못 생명을 자비로 애호하는 그 자체가 불교라는 의미이다.

이런 가르침대로 '사람의 아

장애인과 송년법회를 18일 반아라이온스회

함께하는 삶은 참으로 아름답다.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돈독한 신심으로 모두 하나가 되는 세상은 우리모두가 바라는 불국정토가 아닐까?

사회화사를 통해 신심을 다지고 이웃과 함께 하는 신명활동을 하고 있는 반아라이온스회(회장 강학일)는 저물어가는 94년을 불자장애인들과의 따뜻한 만남으로 마무리 짓는다.

반아라이온스회는 오는 18일

생활속의 불교 ⑧

영원히 썩지 않는 씨앗

빛깔은 새가 들고 밭일은 쥐가 듣는다고 한다. 새라 해서 나는 새가 아니고, 쥐라 해서 천장 속의 쥐가 아니다. 불법에 따르면 삼천대천세계, 이 우주에는 진리의 그물이 쳐져 있어서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 말 한 마디 한 마디, 짓는 생각 하나하나가 다 포착되고 기록된다고 한다. 그러기에 나만 아는 일, 너와 나밖에 모르는 일이란 애초부터 있을 수가 없다고 한다. 바로 내가 아는 일은 우주 전체가 알고 부처가 알고 내 근본이 안다는 뜻이다.

마치 거대한 컴퓨터에 일일이 기록되는 것, 거대한 녹음기에 일일이 녹음되는 것과 같다. 그것을 불가에서는 '업'이라 하고, 그 업은 원인과 결과의 이치에 따라 언제 어느 때고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 온다고 한다. 말하자면 지은 대로 받는다는 뜻이다.

그렇듯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한 치의 오차도 없으며 지은 것은 채록채록 쌓여 있다가 조건이 맞으면 꼭 튀어나온다고 한다. 따라서 누구나 지은 것을 짚어낸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과는 영원히 썩지 않는 씨앗이라고 한다. 그러나 불법에는 그 업이 녹는 도리도 있다.